
 <b>인천광역시</b>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자	2023년 10월 6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수산기술 지원센터	담 당 자	• 수산기술보급팀장 이의진 ☎458-7461 • 담당자 황윤재 ☎458-746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역에 적합한 김 양식 품종 찾는다**  
**- 2024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과제 최종 선정 -**  
**- 지역 적합 품종 개발 통해 김 양식 어가 소득 증대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공모를 통해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지역 적합 품종 개발」 과제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교습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과 어구·어법을 개발하거나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 김 양식 면허는 총 49건에 양식 면적 1,152ha(헥타르)로 2023년산( '22. 11. ~ ' 23. 4.) 김 생산량은 6,338톤, 생산액은 56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연구과제의 품종인 ‘김 국유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에서 육종 개발한 토종 김으로 현재까지 18개의 국유품종보호권이 출원 및 등록돼 있다.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수산 식품 수출 1위 품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에서 개발한 김 국유품종 18품종 중 4품종을 선정해 인천시 관내 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탐색하고, 안정적으로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조류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향후 김 양식어업인 어가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억 3,500만 원(1년 차 4,500만 원, 2년 차 4,500만 원, 3년 차 4,500만 원)이며, 해조류연구소에서 4품종 분양을 시작으로 옹진군 영흥도 해역에서 현장 적용 시험 및 어장환경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지역 적합품종 개발을 통해 김 양식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교습어장 사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어가소득 증대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인천시 김 양식어장 전경 및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



인천시 김 양식장 전경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